

시민과 공무원의 지역사회 안전인식 및 관련 요인 비교: 경기도 S시를 중심으로

이명선* · 송현종**† · 이해진***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이천효요양병원 간호사

Comparison of perception and related factors of community safety between citizen and officer: Focused on S-si in Kyunggi-do

Myung Sun Lee* · Hyunjong Song**† · Heji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Sangji University

***Nurse, Icheonhyo Convalescent Hospital

ABSTRACT

Background & objectives: Understanding the awareness of policy targets and implementers about safety in the local community is the crucial to establish a systematic community safety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local citizens and civil servants regarding community safety and its related factors.

Methods: For achieving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survey targeting 538 citizens and 404 civil servants in S-si, Kyunggi-do. Self-administred and web-based survey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April 1st to 16th 2021.

Results: Civil servants scored higher in community safety perception than citizens, and S city's safety interest,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scores were also higher than those of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thought about in interest of safety in S-si, providing and sharing about safet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participation of community safety poli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ption of community safety.

Conclusions: Setting safety as the top priority in S city policy and paying attention to safety by the mayor, public officials, and city council members is an important way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local safety. Also, efforts at the city level are needed to foster safety knowledge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on safety.

Key words: Citizen, Community safety, Officer, Perception

접수일 : 2021년 10월 30일, 수정일 : 2021년 11월 07일, 채택일 : 2021년 11월 08일

교신저자 : 송현종(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Tel: 033-738-7916, Fax: 033-738-7910, E-mail: hjsong@sangji.ac.kr

I. 서론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이명선, 2015). 최근 헌법에 ‘안전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를 국가의 기본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고대유와 김도윤, 2017).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지역사회의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 기구에서도 1989년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구성원과 각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도시 프로그램 개발하였는데(이재송 등, 2017)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안전관리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이해당사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당사자이면서 지역사회 정책의 수요자이므로 지역주민의 안전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임동균과 송승현, 2020).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조민상,

2019).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와 더불어 원상 회복에 비용이 부담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고대유와 김도윤, 2017)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안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전관리 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택희 등, 2020).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한 지역사회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인식에 대한 연구(서재호와 이승중, 2012; 고대유와 김도윤, 2017; 이재송 등, 2017; 김찬선 등, 2019; 오후와 배민기, 2020)는 다수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조사의 대상과 목적을 한정하여 수행된 연구가 많았으며 더욱이 지역사회 주민과 공무원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임동진, 2016; 조택희 등, 2020)이었다. 지역사회 주민과 공문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도 단순하게 두 집단의 안전인식 차이만을 비교하였거나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여서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안전인식과 관련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여 실효성있는 지역사회 안전관리 및 증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 S시에 거주하는 성인과 S시청 소속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인식

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 S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과 S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S시 시민의 경우 18개 행정동에 각각 30명씩을 표본 수로 할당하고 각 행정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성인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총 540명을 조사하였으며, S시청 소속 공무원은 404명을 조사하였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나 시민은 자기기입 방법으로, 공무원은 웹서베이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다. 시민 응답자 540명 중 일부 문항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시민 538명과 공무원 404명 총 94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E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Ewha-202106-0014-01).

3. 변수선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안전 인식도로, 선행연구(Ruijsbroek et al., 2015; 임동진, 2016)에서는 안전 인식도를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S시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100점 만점 중 몇 점인지 점수로 적어주세요’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해당 문항에 대하여 지역 전반의 안전수준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100점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지역사회 안전인식 관련 선행연구(임동진, 2016;

이재송 등, 2017)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모든 독립변수는 개인 수준의 질문과 S시 수준의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신의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수준,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의 질문과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공유 수준,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및 시민참여 수준의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질문의 구성은 지역사회 안전인식에는 개인 차원의 인식(Solvic, 1999)과 지역 차원의 인식(White, 1995)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안전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① 나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② 나는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편이다, ③ 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728$ 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안전에 대한 S시의 관심은 ① S시장 및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② S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③ S시 관내 공공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건소 등)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④ S시는 시정 업무 중 안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868$ 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보유에 대한 문항은 ① 나는 안전사고 예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② 나는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로 측정하였다. S시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해서는 ① S시는 지역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편이다, ② 시민들은 S시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이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각각 .812, .846으로 내적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① 나는 지역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② 나는 지역에서 안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이에 잘 따르는 편이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628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S시의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문항은 ① S시는 지역안전관련 문제에 시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② 시민들은 지역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809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4점 Likert scale로 질문하였으며 1점에서 4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유형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과 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시민과 공무원의 지역안전 인식도,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안전 인식도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역안전 인식도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 시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전체 분석 대상자 942명 중 시민은 57.1%(538명), 공무원은 42.9%(404명)이었다. 연령은 평균 41세(41.39±13.00)이었으며 시민은 46세(46.02±13.59), 공무원은 35세(35.22±9.04)이었다. 연령분포는 29세 미만이 25.8%(243명), 30~39세가 21.5%(203명), 40~49세가 20.2%(190명), 50~59세가 21.7%(204명),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전체	시민	공무원	X ² /t
성별	여	559(59.3)	347(64.5)	212(52.5)	13.82***
	남	383(40.7)	191(35.5)	192(47.5)	
연령그룹	29세 미만	243(25.8)	99(18.4)	144(35.6)	185.38***
	30~39세	203(21.5)	70(13.0)	133(32.9)	
	40~49세	190(20.2)	106(19.7)	84(20.8)	
	50~59세	204(21.7)	161(29.9)	43(10.6)	
	60세 이상	102(10.8)	102(19.0)	0(0.0)	
연령(평균±표준편차)		41.39±13.00	46.02±13.59	35.22±9.04	14.63***
계		942(100.0)	538(57.1)	404(42.9)	

주: *p<0.05, ** p<0.01, *** p<0.001

단위: N(%)

60세 이상이 10.8%(102명)이었다. 시민 응답자는 50~59세가 29.9%(161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은 19.0%(102명)이었으나, 공무원의 경우 29세 미만이 35.6%(144명)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의 응답자는 없어 연령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전체 942명 중 남자가 40.7%(383명), 여자가 59.3%(559명)이었으며, 시민 응답자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64.5%, 공무원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52.5%로 공무원보다 시민 중에서 여자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2. 시민과 공무원의 지역안전 인식도, 안전에 대한 관심, 지식 및 정보, 사회참여의 차이

지역안전 인식도는 10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74.94점(74.94±13.79)이었다. 시민과 공무원을 비교한 결과, 시민은 73.7점(73.70±14.46), 공무원은 76.58점(76.58±12.70)으로 시민에 비해서 공무원의 지역안전 인식도 점수가 높아 S시의 안전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자신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4점 만점에 평균 3.24점(3.24±.48)이었으며, 공무원(3.18±.45)보다는 시민(3.30±.49)의 점수가 높아서 시민이 자신의 안전

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반면,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4점 만점에 3.05점(3.05±.54)이었으며, 시민(2.97±.56)보다 공무원(3.16±.49)의 점수가 높아서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p<0.001).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평가한 점수는 평균 2.76점(2.76±.62)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 문항에 비해서는 평균이 낮았다. 공무원의 점수는 2.70점(2.70±.59), 시민의 경우 2.81점(2.81±.64)으로 공무원보다 시민의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S시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공유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95점(2.95±.62)로 평가하였으며, 시민(2.87±.63)에 비하여 공무원(3.05±.60)의 점수가 높아서 시민에 비하여 공무원이 S시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과 공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p<0.001). 자신의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점수는 평균 3.42점(3.42±.49)이었으며, 시민과 공무원 간의 점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S시의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는 4점 만점에 2.93점(2.93±.63)이었고, 시민(2.85±.64)보다는 공무원(3.04±.59)의 점수가 높아서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표 2〉 연구대상자 유형별 지역안전 인식도, 안전에 대한 관심, 지식 및 정보, 사회참여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수		전체	시민	공무원	t
지역안전 인식도		74.94±13.80	73.70±14.46	76.58±12.70	-3.25**
자신에 대한 평가	안전에 대한 관심	3.24±.48	3.30±.49	3.18±.45	3.83***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2.76±.62	2.81±.64	2.70±.59	2.68**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3.42±.49	3.43±.51	3.40±.46	1.04
S시에 대한 평가	안전에 대한 관심	3.05±.54	2.97±.56	3.16±.49	-5.60***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2.95±.62	2.87±.63	3.05±.60	-4.62***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2.93±.63	2.85±.64	3.04±.59	-4.74***

주: *p<0.05, ** p<0.01, *** p<0.001

3. 지역안전 인식도, 안전에 대한 관심, 지식 및 정보, 사회참여 간의 상관성

지역안전 인식도,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개 변수와 지역 안전 인식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지역안전 인식도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역안전 인식도간의 상관계수($r=.394$)가 가장 컸으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의 경우 상관계수($r=.138$)가 가장 작았다.

〈표 3〉 지역안전 인식도, 안전에 대한 관심, 지식 및 정보,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변수		지역안전 인식도
자신에 대한 평가	안전에 대한 관심	.177***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201***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138***
S시에 대한 평가	안전에 대한 관심	.394***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381***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376***

주: * $p<0.05$, ** $p<0.01$, *** $p<0.001$

4. 지역안전 인식도 관련 요인

지역안전 인식도 관련 요인은 전체 대상자, 시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모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는 3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 S시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과 공유, S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변수가 지역안전 인식도에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즉, S시의 시장 및 시의회 의원, 공무원, 관내 유관기관 공무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업무 중 안전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수록($\beta=0.181$, $p<0.001$), S시가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수록($\beta=0.181$, $p<0.05$), S시가 안전에 대한 시민 참여를 권장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할수록($\beta=0.122$, $p<0.001$) S시의 안전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17.9%이었다.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 S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변수가 지역안전 인식도에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즉, S시의 시장 및 시의회 의원, 공무원, 관내 유관기관 공무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업무 중 안전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수록($\beta=0.164$, $p<0.05$), S시가 안전에 대한 시민 참여를 권장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할수록($\beta=0.167$, $p<0.01$) S시의 안전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14.8%이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다소 달라서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 S시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과 공유가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즉, S시의 시장 및 시의회 의원,

공무원, 관내 유관기관 공무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업무 중 안전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수록($\beta=0.236$, $p<0.01$), S시가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수록($\beta=0.195$, $p<0.05$) S시의 안전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20.8%이었다.

〈표 4〉 지역안전 인식도 관련 요인

구분	전체		시민		공무원		
	β	SE	β	SE	β	SE	
constant		3.614		5.049		5.183	
성별(여=ref.)	0.026	0.873	0.004	1.277	0.070	1.177	
연령	0.033	0.036	0.053	0.046	-0.031	0.065	
응답자 구분(공무원=ref.)	-0.050	0.939					
자신에 대한 평가	안전에 대한 관심	0.040	1.229	0.016	1.723	0.088	1.733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0.037	0.819	0.009	1.126	0.065	1.203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0.026	1.098	0.006	1.539	-0.078	1.550
S시에 대한 평가	안전에 대한 관심	0.181***	1.286	0.164*	1.730	0.236**	1.967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0.133*	1.134	0.100	1.562	0.195*	1.656
	안전에 대한 사회참여	0.122***	1.072	0.167**	1.401	0.001	1.717
R ²	0.187		0.161		0.223		
Adj. R ²	0.179		0.148		0.208		
F	23.125***		12.051***		14.211***		

주: * $p<0.05$, ** $p<0.01$, *** $p<0.001$

IV. 논의

본 연구는 지역안전 정책의 수요자와 실행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인식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으나 실제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두 집단에 대한 비교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S시의 시민과 공무원 간에는 지역안전 인식도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고, 관련 요인도 다르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들의 안전 정책에 대

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시의 시민 538명과 공무원 404명에 대하여 S시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시민보다는 S시의 안전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단변량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약 3점 가량 공무원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조택희 등, 2020)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학적 특성 및 다른 독립변수를 투입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S시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임동진(2016)의 연구

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시민에 비하여 공무원의 안전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안전과 관련된 기술에 공무원이 더 익숙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조사 시점 및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임동진의 연구에서 조사 시점은 2014년이었는데 그 이후 기술발전과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안전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노출에 있어 시민과 공무원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S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지식 및 정보 제공과 공유, 사회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처럼 시민은 S시를 안전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지식 및 정보, 사회참여의 3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보유 수준에 대한 평가가 4점 만점에 2.76점(2.76±.62)으로 다른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서 동일하게 분석되었는데 S시의 시민과 공무원은 안전사고 예방지식,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역안전 인식도 관련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S시가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S시가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S시의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 자신들의 안전 지식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지만 S에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수록 S시는 안전해진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이명선 등, 2012)에서는 소방, 생활, 산업, 시설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지식은 안전인식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전행동으로 이어져 사고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박종희, 2007). 따라서 지역 안전 정보 제공자나 지역 안전 프로그램 제공 기관은 주민의 안전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안전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승현, 2005).

S시의 시장, 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정책 입안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시정 업무에서의 우선순위로 선정된다고 인식할수록 S시의 안전수준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민과 공무원에서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아젠다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 전체 정책 중 안전을 우선순위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민대상 분석 결과에서 S시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할수록 S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전네트워크, 실질적인 안전프로그램,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한세역, 2016).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단면조사 설계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론이나 일반화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추후 인과성 있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추적조사 연구와 같은 설계를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가 실시되었던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던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면

접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서 자기기입 방법과 웹서베이 방법을 사용하였고 응답률과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응답자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많이 포함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서재호와 이승중, 2012; 이재송 등, 2017)에서는 소득, 경제활동, 학력, 혼인유무, 직업이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면접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의 지역안전 정책 수요자와 실제 집행자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에 비해서 공무원의 지역안전 인식도 점수가 높았으나 관련 요인을 통제된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 S시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정책 수요자와 실제 집행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S시 정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시장 및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민들의 지역안전 인식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방안이며, 이와 더불어 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과 공무원 모두 자신의 안전 지식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시 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활발할수록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므로 안전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고대유, 김도윤. (2017). 지역 재난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지역, 학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9(3), 393-417.
2. 김승현. (2005). 유아교사의 안전지식 정도 및 안전연수에 관한 인식과 요구 조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3. 김찬선, 윤태관, 박현호. (2019).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과 시민안전의식 및 범죄 두려움의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8(1), 111-126.
4. 박종희. (2007).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5. 서재호, 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8(3), 1-20.
6. 오후, 배민기. (2020). 정책수요자 인식기반의 재난안전정책 우선순위 분석: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GRI연구논총, 22(3), 183-207.
7. 이명선, 최혜정, 김미희, 박예진. (2012).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2), 93-105.
8. 이명선, 허역, 김종만, 박묘선, 김석천. (2015). 중학교 안전생활. 서울: YBM.
9. 이재송, 김유경, 최열. (2017).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 인식 분석-서울시와 부산시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2(3), 215-235.
10. 임동균, 송승현. (2020). 재난안전법의 문제 및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완화 노력 평가를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발. 법이론실무연구, 8(4), 147-174.
11. 임동진. (2016).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20(1), 89-114.

12. 조민상. (2019). 시민참여를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지도 구축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189-206.
13. 조택희, 변성수, 배민기. (2020). 정책집행구조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의 재난안전 인식차이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9(4), 217-237.
14. 한세역. (2016). 지역문제 해결의 Co-creation 접근: 안전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0(1), 225-249.
15. Slovic P. (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19(4): 689-701.
16. Ruijsbroek A, Droomers M, Groenewegen PP, Hardyns W, Stronks K. (2015). Social safety, self-rated general health and physical activity: Changes in area crime, area cohesion. *Health & place*, 31, 39-45.
17. White D. (1995). Application of systems thinking to risk manage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nagement Decision*, 33(10), 34-45.